

미가야의 예언이 외면을 당하다

역대하 18:18-27, 찬송가 522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녀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 실수하고 넘어졌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18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19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피어 내어, 그로 하여금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여 거기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는데, 20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피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를 피어내겠느냐?’

21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피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22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3 그러자 그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어느 길로 나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24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바로 그 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5 이스라엘 왕이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서,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도록 하여라. 26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

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27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 마디 덧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개역개정 성경

18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피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0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피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피겠고 또 이루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22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23 그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

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 하더냐 하는지라

24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25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6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27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3 본문 설명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파멸시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예언자들에게 보내셨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무례한 행동으로 그의 말을 반박하고, 아합은 무자비하게 그를 투옥시킵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결코 평안하게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켜본 백성들에게도 그 말을 기억하도록 당부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가야의 예언과 경고가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전히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했고, 왕은 미가야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는 수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종교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리할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합니까?

- 4 삶의 나눔
- 5 함께하는 기도
- 6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목상

1 목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